

## 『미래를 여는 역사』가 중국에 미친 영향

쭈즈량(중국, 상하이사범대학 교수)

### 『미래를 여는 역사(중국 서명: 東亞三國의近現代史)』의 출간과 재판

세계 반과시스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대전 종전 60주년을 맞이하는 2005년, 한중일 세 나라에서 40명이 넘는 학자들이 3년여에 걸쳐 작업한 결과, 중국어 버전 『미래를 여는 역사』가 2005년 6월 9일 드디어 베이징의 서점에 모습을 드러냈다. 베이징의 사회과학 문헌출판사에서 출간한 이 책은 2005년 6월 첫 선을 보인 이래로 쉼을 거둬들면서, 2006년 5월에는 재판까지 찍는 등 모두 13만 부가 팔렸다.

세 나라의 수도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발간된 『미래를 여는 역사』는 현대 동아시아 문화 교류사에 한 획을 긋는 역작이며, 세 나라 학자와 출판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다.

### 중국 사회의 반향

『미래를 여는 역사』의 후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동아시아에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역사 인식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물론 어린 학생들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역사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전망은 동아시아의 어린 이·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 역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배우고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을 거듭함으로써 확실해질 것입니다.” 이 언급은 우리들 모든 자들의 가슴 깊숙이로부터 우리나라의 목소리다.

이 책에 대한 중국 사회 각계 각층의 반응은 찬사 일색이었다. 남방네트워크(南方網)는 평론을 통해 “최근 일본 우익 세력의 역사 왜곡으로 일어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과거 피해국이었던 중국, 한국 등 주변 국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래를 여는 역사』 공동편찬위원회가 조직되어 이 책을 결과물로 내놓았다. 동아시아 세 나라의 근현대사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면서 사진도 적절하게 삽입된 이 책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내면서 동아시아사의 큰 그림을 그려냈다. 편찬위원들은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자국 역사의 한계를 넘어, 동아시아사의 시각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의 물 흐르는 듯한 글 속에서 과거의 격렬한 논쟁이나 이견은 찾아볼 수 없다. (중략) 이 책의 출간은 한중일 세 나라가 역사 인식 측면에서 얻어낸 중요한 돌파구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세 나라 청소년과 동아시아 시민들에게 동아시아 근대 이후의 역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 비교적 권위 있는 읽을거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하이(上海) 인민출판사(人民出版社) 편집부장 귀즈쿤(郭志坤)은 자신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세 나라의 주요 필진이 모두 학자나 역사 연구자와 같은 시민 사회의 역량이라는 점이다. 세 나라에서 십여 명씩 모두 사십 명이 넘는 필진이 참여하였다. 여러 나라가 함께 교과서를 편찬하는 프로젝트라서 당연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정의감에 불타는 학자들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2001년 일본 우익 교과서가 나오자 이를 예의주시하던 세 나라 학자들이 2002년 5월 중국 난징(南京)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평화 포럼에서 만났다. 여기서 세 나라의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올바른 책을 읽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02년 12월, 학자들은 재빨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의 기본적 틀을 마련하였다. 각자 할 일을 나눈 뒤 학자들은 개인적으로 자료 수집과 고증 작업을 진행하여 의견을 내놓고 다시 토론을 진행하였다. 원고를 완성하고 삼자가 함께 읽고 다시 토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팩스나 이메일 등의 형식으로 나머지 두 나라에 전달되었고, 이를 각자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편집위원회의 전체 토론에 부쳤다. 문제가 있을 경우 원고 작성자에게 수정을 요구하였고, 의문 사항은 다시 회의를 열어 토론하고 수정하였다. 이러한 왕래의 불편이라는 어려움 외에도 학자들 사이에 학술적 견해 차이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학자적 양식과 정의감에서 출발해 진리를 추구하고 역사의 진실을 되살리고자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진 세 나라 학자들은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가능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결국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바로 우익세력의 거듭된 방해 공작이었다. 이번 공동 교과서 작업에 매우 적대적이던 일본 우익세력은 공동의 역사 인식을 구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공동의 역사 인식을 위한 노력들을 폄하하고자 사력을 다했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파문으려는 일본 우익세력의 음모는 오히려 세 나라 교과서 편찬자들의 공분을 사게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교과서를 편찬해야겠다는 결심과 믿음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한중일 공동 교과서의 편찬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첫째, 일본 우익세력에 대한 강력한 반격이다. 둘째, 대화를 통해 공동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셋째, 학술 교류와 경제 협력에 일조한다. 갈등이 아닌 대화로, 문을 닫아 걸기보다는 교류를, 독단을 버리고 협의를, 세 나라 학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인식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한 토론의 결과물로 쓰여진 이 책이 한국, 중국, 일본 특히 세 나라 청소년 사이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결론적으로, 이 책의 발간은 동아시아 평화 나아가 세계의 공동 발전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복단대학(復旦大學) 학생은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짚어내고 있다. “5월 26일 발간된 한중일 세 나라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미래를 여는 역사』는 2차 대전 종전 6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사건이다. 일부 독자들은 심지어 내용이 충실한 이 책을 교과서로 분류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역사 교과서 왜곡, 신사 참배 등에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일본에서 발행된 이 교과서의 운명은 점치지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책이 우리나라 초중교 역사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국측 필진들은 동아시아 평화 포럼, 한중일 청소년 역사 캠프 등을 열었고, 모든 필진이 베이징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다. 부평(步平), 쑤즈량(蘇智良), 양훤(楊群) 등은 난징(南京),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우한(武漢), 정저우(鄭州), 선양(沈陽) 등지에서 순회 강연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또한 상하이중고등학교(上海中學) 국제부에서 2005년 9월 이 책을 역사 교과서로 선정하여, 『미래를 여는 역사』는 중국의 학교 교실에 입성하게 되었다. 이 밖에 상하이시의 다른 고등학교도 이 책을 역사 부교재로 선정하여 학생들의 역사 교육에 참고 자료로 추천하였다. 이 책의 중국어판은 2005년 중국에서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으며, 몇 달 동안 사회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머물렀다. 2007년 4월에는 중국 제2회 ‘국가 도서관 도서상’을 수상하였다.

“과거를 잊지 말고 역사를 기억하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열어 짓기자.” 한

중일 세 나라 청소년들이 역사의 진실을 깨달아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도록, 그리고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평화와 우호의 씨앗을 심기 위하여, 중국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 근대사연구소(近代史研究所), 항일전쟁사학회(抗日戰爭史學會), 인민항일전쟁기념관(人民抗日戰爭紀念館) 사회과학원 사회과학문헌출판사(社會科學文獻出版社)가 소후네트위크(搜狐網) 독서 채널 및 현대교육신문(現代教育報)과 공동으로 지식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2006년 5월 12일부터 시작되어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평가위원회의 채점 결과 모두 2,710개의 답안지가 만점을 받았다. 경진대회 규칙에 따라 추첨으로 시상하게 되었고, 2006년 7월 2일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시상식을 거행하면서 이 책의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 관련 서평

『미래를 여는 역사』 출판 이후 학자들이 발표한 서평은 대부분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이다.

장홍(張弘)은 저자 가운데 쭉즈량의 말을 빌려 “『미래를 여는 역사』가 다른 역사 교재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중국 역사 교재가 예외없이 모두 중국이라는 일국의 관점에서 출발했다면, 이 책이 관심은 세 나라의 역동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으로, 이 책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 당시 역사를 조망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국내적으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았다. 일례로 중국에서 편찬된 세계사를 보면 한반도 역사에 관한 부분은 매우 적고, 심지어는 역사책을 저술하는 저자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책은 일본과 한반도 역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 독자의 시야를 크게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또한 『미래를 여는 역사』를 읽는 독자들은 세 나라 학자들이 흘린 땀방울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기본적인 역사관에 있어서는 세 나라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사실 사람들의 예측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별로 없었지만, 두 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논쟁거리가 적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중 양국은 2차 대전 당시 일본 파시스트의 유린을 겪은 피해자이지만, 일본은 피해자인 동시에 한국과 중국에 재난을 안겨 준 원흉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본 우익 역사 교과서의 왜곡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진 이 책은 사실 중국 근현대사에 대한 기술에서 빈 구석이 많다. 또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기도 한다. 게다가 동아시아 세 나라의 상호 관계 속에 서구의 역할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전개되었지만, 역시 이 책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래도 훌륭한 시작으로 손색이 없다. 2차 대전 당시의 기본적인 사실과 성격(일본이 침략했다는 사실)에 대해 일단 의견 일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독자가 자국에서 벗어나 시선을 너 넓은 영역으로 확대할 때, 60여 년 전의 전쟁에 대해서 보다 총체적이고 깊이 있는 견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시작은 어려웠지만 세종의 책이 모두 자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술에 참여한 학자들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일본에서는 독자들의 열기에 비해 언론이 냉담한 편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들의 노력은 세 나라 민중의 인정을 받았다. 이토록 훌륭한 시작이 있기에, 공동의 역사 인식 구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 책이 세 나라 민중이 현재 벌이고 있는 교류에 일조하여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오해를 풀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

승잉(熊鷹)은 「미래를 여는 역사: 국가를 넘어선 역사 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시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으며, 단지 책과 교육을

통해 전쟁에 대한 인식을 획득한다. 세 나라의 청소년들은 각자 역사 및 문화 배경 그리고 생활 환경이 달라 이로 인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도 각자 다르다. 따라서 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본 역사의 진실을 청소년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미래를 여는 역사』는 세 나라에서 함께 편찬하여 출판함으로써 세 나라 역사학자와 교사들의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중일 세 나라를 기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책은 세 나라 일반 독자를 타깃으로 하여, 근대에 한중일 세 나라가 걸어온 발자취를 가능한 총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세 나라의 역사, 특히 한중과 일본 사이의 침략과 침략에 대한 역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소개하고 있다.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라 사이의 상호 이해와 상대방의 역사와 공동의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이다.”

둥베이사범대학(東北師範大學)의 귀용후(郭永虎)는 『역사교학(歷史教學)』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을 훑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차이점보다는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평화와 우호의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시야의 확장이다. 일국의 한계를 깨면서 동시에 단순히 정치와 전쟁만을 다루는 협소함도 극복하였다. 셋째, 사료가 매우 상세하여, 전쟁으로 인한 세 나라 민중의 상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드러냈다. 넷째, 적절한 사진과 자연스러운 서술이 돋보이는 참신한 글쓰기 방식이 두드러진다.”

### 미래의 협력 전망

모든 나라의 역사 교과서는 예외없이 자국을 중심으로 집필된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역사를 관찰하고 있는 『미래를 여는 역사』는 역사의 진실을 복원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 책은 중국 인민들이 겪은 전쟁의 아픔 외에도 한국과 일본이 겪은 재난을 기술하고 있어, 역사 문제에 관한 대화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한 민중들의 이해에도 일조한다. 따라서 나는 2005년에 발표한 「공동의 역사 인식 추구」에서 이 책의 편찬에 참여한 세 나라 학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물론 이 책에 대해 중국 내부에는 이견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전쟁에서 일본과 일본 국민들이 겪은 고난을 지나치게 많이 기술하고 있는 데 반해 침략 전쟁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책임에 대해서는 기술이 약소하며, 중국 측이 입은 상처에 대한 기록도 지나치게 간략하여, 중국 학자들이 지나치게 양보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미래를 여는 역사』는 무거운 역사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며, 또한 미래를 열어젖히고자 하는 책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책이 동아시아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시도이기를 바란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일본의 진보 세력에 힘을 보태 일본 우익 교과서가 교실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기를 바란다.

중국 사회 그리고 학자들은 문화, 교육 등 분야도 세 나라의 경제 무역 협력의 발걸음을 따라잡아, 동아시아 각국의 협력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东亚三国的近现代史》在中国的影响

苏智良 (上海师范大学教授)

## 《东亚三国的近现代史》出版与再版

2005年是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60周年，经过中日韩三国40多位学者历经三年的努力，《东亚三国的近现代史》中文版2005年6月9日在北京举行了首发式。该书由北京的社科文献出版社出版，自2005年6月问世后，不断加印，并于2006年5月再版，前后共印刷13万册。

《东亚三国的近现代史》同一版本，用中、韩、日3种文字在三国的首都同期发行，创造了当代东亚文化交流史上的一个佳话。这是三国学者和出版界共同努力奋斗的结果。

## 中国社会的反响

《东亚三国的近现代史》后记指出：“为了和平的东亚共同体，首先必须建立的是东亚各国对历史问题的共同认识，即历史的共有，当然，这不仅是年轻一代的任务。要实现历史认识的共有，需要东亚的年轻人和市民们在了解侵略战争与殖民地统治的历史事实基础上，通过反省过去的反复的对话与讨论而切实地行动起来。”这代表了所有作者的心声。

对于该书，中国社会各界反响空前叫好。南方网评论说，“近年来日本右翼为歪曲历史而引发的篡改日本教科书问题，越来越引起曾是较大受害国的中、韩等国强烈关注。为进行一次有力回应，共同组成《东亚三国的近现代史》编写委员会，成就了这本图文并茂、客观、全面、扼要地叙述了东亚三国的近现代历史的著作。编纂们没有带任何主观感情，都跳出了本国历史的局限，从整个东亚历史的角度进行写作，我们从流畅的笔调中，已无法看出曾有的激烈的争论和分歧……本书的问世，既可视作中、日、韩三国在历史认知上取得的重要突破，关键的是，它为三国青少年以及东亚人民认知东亚近代以来的历史，提供了比较权威的读本。”

上海人民出版社总编辑郭志坤发表感想指出：“非常可贵的是，三国的编纂者的主力都是民间力量，以学者及历史研究者居多，每个国家十几人，全加起来四十余人。国际间的联手编纂项目具有相当难度，可是在负有正义感的学者面前没有被难住。2001年日本右翼教科书出来后，三国学者都在关注；2002年5月，在南京举行的亚太和平论坛，有人提出了三国共同撰写历史教科书的建议，觉得应该一起编一本好书给学生看。2002年12月，很快达成共识就拿出了基本框架。大致分工后，学者个人进行资料搜集、考证工作，提出意见再讨论；成稿后三方都阅读，再讨论再修改。信件书稿以传真、邮件等方式传给另两方，再翻成本国的文字，让编纂会成员集体讨论，有意见再返回给编纂者修改，若有疑问再开会讨论，再修改。除了往来不便之难，还有学者们学术见解之差异。正由于学者们的良知和正义感，有着追求真理、还历史真面目的强烈愿望，三国学者在编写过程中，相互切磋，求同存异，最终在基本原则问题上达成了完全一致。再一难，就是受到了右翼势力的重重阻拦。日本的右翼势力是十分痛恨这一联合活动，他们认为没有也不可能建立共同的历史认识，竭力贬低为共同的历史认识而进行的积极努力。日本右翼势力篡改历史、掩盖历史的险恶图谋，更激起三国编纂者的义愤，从而增强编纂者勇克困难、编好读本的决心和信心。”他认为，三国学者联手编纂此书的意义有三：其一，这是对日本右翼势力的有力回击。其二，沟通可以达成共识。其三，有利于学术交流、经济合作。对话而不对抗，交流而不封闭，磋商而不独断，三国学者正是选择了这条认识之路，所以，我们相信通过严肃的讨论编写出来的这本书能够加深中、日、韩三国之间、特别是三国青少年之间的相互理解。总之，这对实现东亚和平乃至世界共同发展具有重要意义。

复旦大学的学生指出：5月26日，一本由中日韩三国学者合作编写名为《东亚三国的近现代史》的新书，成为二战胜利60周年这一特殊年份里又一桩富有意味的事件。有些读者呼吁这本书应该算是教科类的吧，图文并茂很详细。近年来日本一直都在否认历史篡改教科书、参拜神社，

不知道对于这本在日本发行的教科书的命运如何。个人认为这本书应该作为我国的中小学历史教材！

为扩大影响，中方编写者们举办东亚和平论坛、中日韩三国青少年历史夏令营，中方全体编委出席了在北京的首发式，步平、苏智良、杨群等去南京、上海、杭州、武汉、郑州、沈阳等地进行巡回演讲，获得良好的效果。上海中学国际部将在2005年9月就选定这本书作为历史教科书，《东亚三国的近现代史》走入了中国的课堂。另外，上海市其他一些高中也把这本书作为拓展型历史教材，供学生们学习参考。该书的中文版于2005年评选为中国社会类畅销书籍，并数月名列社科类畅销书榜首。2007年4月获得中国第二届“国家图书馆文津图书奖”。

“牢记历史，不忘过去，珍爱和平，开创未来”。为了让中日韩三国青少年了解真实的历史，铭记战争的教训，在年轻一代的心中种下和平友好的种子，由中国社会科学院近代史研究所、中国抗日战争史学会、中国人民抗日战争纪念馆、中国社会科学院社会科学文献出版社联合搜狐网读书频道、《现代教育报》共同举办了该项知识竞赛。该项知识竞赛于2006年5月12日启动，活动历时一个月，经过活动评选委员会的评判，共有2710份试卷获得满分，根据竞赛规则进行抽奖，抽奖仪式已于2006年7月2日在中国社会科学院举行。扩大了该书的影响。

### 关于该书的书评

《东亚三国的近现代史》出版后，学者们纷纷发表书评，基调是充分肯定的。

学者张弘引用作者之一苏智良的话“《东亚三国的近现代史》与其他历史读本最大的不同在于，以前国内的历史读本都是从中国一国的角度出发的，而此书关照的则是三国的互动，借助彼此之间的关系来考察这段历史。国内过去对日本和韩国的历史关注还不是很多，比如在中国编写的世界史中，关于朝鲜半岛历史的部分非常少，甚至连编写历史的人都不够熟悉，而这本书则给读者提供了有关日本、朝鲜半岛历史的内容，这将大大开阔中国读者的视野。”他指出，从《东亚三国的近现代史》中，读者不难见到三国学者所做的种种努力。在基本的历史观方面，三国学者并无差异。事实正如人们所预料的那样，中韩两国学者之间异议不多，两方与日本的争执很频繁。个中原因在于，两国在二战中都是饱受日本法西斯蹂躏的受害者，而日本既是受害者，同时也是给中韩带来灾难的罪魁祸首。由于本书主要是针对日本右翼历史教科书中的歪曲，因此，对中国近现代史的阐述多有割裂。此外，一些重大的事件没有得到清晰的交代和阐述，只是一笔带过。此外，东亚三国之间的相互关系与西方国家的参与有着千丝万缕的关系，但本书却少有提及。然而，它仍然不失为一个良好的开端：在对二战的基本事实及其性质（日本就是侵略）方面，大家事先就有了共识。当读者把目光从本国扩大到更宽广的领域时，对于60多年前的战争也会形成更全面和深刻的看法。尽管起点极其艰难，但三种版本在本国都很畅销的事实则可以让参与编写的学者们松一口气——毕竟，他们的努力得到了三国民众的承认，尽管在日本是读者热中而媒体冷落。有了这样一个开端，人们有理由相信，建立共同的历史认知不仅可能，而且它将有有利于促进三国民众今天的交流，澄清误解并消除狭隘。

熊鹰在《〈东亚三国的近现代史〉：跨国史记》一文中写道：“今天活着的人大部分没有对那场战争的亲身体验，只是从书本和教育实践中获得对战争的认识。三国的青少年由于所处的历史背景、文化背景、生活环境不同，产生的战争印象也有差异。因此要站在一个开阔的立场上，把历史的真相更多地告诉三国的青少年们。《东亚三国的近现代史》一书在三国的编撰出版，彰显了三国历史学家和教师的历史责任感。这本书以中日韩三国为叙述对象，以现有研究为基础，以三国普通读者为阅读对象，以浅显流畅的文字尽可能全面地介绍中日韩三国在近代走过的历程，对于三国历史，尤其是中韩与日本之间侵略与反侵略的历史进行了全面、客观公正的介绍。”“展望

未来、需要的是国际间的相互理解与谅解，需要对对方历史和共同的历史深刻的了解。”

东北师大学者郭永虎在杂志《历史教学》上指出：综观全书，有以下几个特点，第一，求同存异——彰显和平与友好的历史观；第二，拓宽视野，突破了一国局限，突破单纯以政治和战争为唯一线索；第三，历史资料翔实，客观公正地揭示战争给三国民众带来的伤害；第四，图文并茂、富于新意的写作方式。

### 期待未来的合作

任何国家的历史教科书都是以本国为中心编写的，而《东亚三国的近现代史》一书站在东亚的角度观察历史，具有还原历史本来面目的意义，书中不仅记叙了中国人民的战争苦难，又同时看到韩国、日本遭受的灾难，这样有助于历史问题的沟通，有助于各国民众对其他国家历史的理解。所以我在2005年写了一文《追求共同的历史认识》，充分肯定了三国学者编写该书的努力和成果。

当然，对于该书的意见在中国似乎也有一些。有些人认为，中国学者的让步很大，书中大量描写了日本国家与国民在战争中的苦难，而对日本国家的侵略责任写得分量不多，中国方面遭受的伤害也记录太少。尤其海外华人对此意见颇大。

《东亚三国的近现代史》是一本记载沉重历史经验的书，也是一本试图开辟未来的书，我们希望它能成为东亚消除分歧、走向和解的有益尝试；并以此声援日本进步势力，制止日本右派教科书进入教室，弘扬正确的历史认识。

中国学者和社会，期待东亚各国之间进一步的合作；在文化、教育方面，能跟上三国贸易、经济合作的步伐。

## 『未来を開く歴史』が中国に与えた影響

スジュリャン(蘇智良, 上海師範大学教授)

### 『未来を開く歴史(中国書名：東亜三国的近現代史)』の刊行と再版

世界の反ファシスト戦争とも言える第二次大戦終戦60周年を迎える2005年、韓中日の3カ国にて40名を越える研究者たちが3年余りを費やした作業の結果、中国語版の『未来を開く歴史』が2005年6月9日、ついに北京の書店に姿を現した。北京の社会科学文献出版社から刊行されたこの本は2005年6月に始めその姿を現して以来印刷を重ね2006年の5月には再版を出すなど全部で13万部が販売された。

三カ国の首都において同一の内容でそれぞれ中国語、韓国語、日本語で同時に発行された『未来を開く歴史』は現代東アジア文化の交流史に一線を画す力作であり、三カ国の研究者と出版会がともに努力した具体的成果だ。

### 中国社会での反応

『未来を開く歴史』の後記を見れば以下のような文がある。“東アジアに平和な共同体をつくるためにはその前提としての歴史認識を共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はもちろん幼い学生た

ちだけの課題ではありません。歴史認識を旧友できるという展望は東アジアのこども・青少年と市民たちが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の歴史を事実を根拠として学び過去を克服するための対話と討論を重ねることで確実のものとなるでしょう(韓国語からの重訳)”この発言は私たち著者全員の胸の奥深くから湧いてきた声だ。

この本に対する中国社会の各界各層の反応は賞賛の一色だった。南方ネットワークは評論を通じ“最近日本の右翼勢力の歴史の歪曲により起きた日本の歴史教科書歪曲問題が過去の被害国であった中国、韓国などの周辺国家の関心を引いている。それに強力に対処するため『未来を開く歴史』共同編纂委員会が組織され、この本をその成果としてもたらした。東アジア三カ国の近現代史を客観的に記述しながら写真も適切に配置されたこの本は核心となる内容を含みつつ東アジアの大きなチャートを描いた。編纂委員たちは主観的な感情を排除し自国史の限界を超え、東アジアの視点から歴史を記述している。この本の流れるような文章のなかで過去の激烈な論争や意見を見出すことはできない。—中略— この本の刊行は韓中日参加国が歴史認識の面で獲得した重要な突破口だと評価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この本は三カ国の青少年と東アジアの近代以後の歴史を認識するのに比較的権威のある読み物だという点においてもその意味が大きい”。

上海の人民出版社の編集部長クウ・ジュクン(郭志坤)は彼の所管を次のように明らかにしている。“その何より貴重なことは三カ国の主要な執筆者がみな教授や研究者といった市民社会の力量であることだ。参加国において10余名ずつ全部で40名を越える執筆者が参加した。いくつかの国がいっしょに教科書を編纂するというプロジェクトのため当然難しい面も多かったが、正義感に燃える研究者たちの前ではそれらは何ら問題とならなかった。2001年、日本の右翼教科書が出るやそれに強く注目していた三カ国の研究者たちが2005年中国の南京において開かれたアジア太平洋平和フォーラムにおいて出会った。その場で三カ国の共同歴史教科書を作り学生たちが正しい本を読めるよ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提案がなされた。2002年12月研究者たちはいち早く共感を分かち持ち協力の基本的な枠を用意した。各自がなすことを配分した後研究者たちは個人的に資料収集と考証作業を進め意見を述べ再び討論を進行した。原稿を完成し三者がともに読み再び討論し修正する作業を進めた。原稿はファクスやメールなどの形で全体討論に付された。問題がある場合、原稿作成者に修正を要求し、疑問な点は再び会議を開き討論、修正した。こうしたやり取りの不便さという問題以外にも研究者の間に学術的な見解の差が少なくなかった。だが、研究者としての良識と正義感から出発し真理を追究し、歴史の真実を甦らせようとする強力な熱望をもった三カ国の研究者たちは教科書編纂の課程において互いに意見を交わしながら可能な合意点を模索するやり方で結局基本的原則的問題に対し完全な意見の一致を見た。もうひとつの問題はまさしく右翼陣営の度重なる妨害工作だった。今回の共同強化者の作業に極めて敵対的だった日本の右翼勢力は共同の歴史認識の構築は不可能だと予断し、共同の歴史認識のための努力を貶めようと死力を尽くした。そのように歴史を歪曲し歴史を埋葬してしまおうとする日本の右翼勢力の陰謀はかえって三カ国の教科書編纂者たちの公憤を買うこととなり、困難を克服し立派な教科書を編纂しなければという決心と意志をいっそう強化するという結果をもたらした”。

彼は韓中日共同教科書の編纂がもつ意味を次のように見ている。一つ目、日本の右翼勢力に対する強力な反撃だ。二つ目、対話を通じた共同認識に到達できる。三つ目、学术交流と経済協力の一助となる。葛藤ではなく輪岩で、扉を閉めきってしまうのではなく交流を、独断を捨てて協議を、三カ国の研究者たちはまさにそうした認識の道を選んだ。そうすることで私たちは



真摯な討論の結果として書かれたこの本が韓国、中国、日本の特に三カ国の青少年の間の理解の幅を広げるのに大きな役割を果たすものと信じている。結論的にこの本の刊行は東アジアの平和さらには世界の郷土発展の実現に重要な意味をもつ。

復旦大学の学生は次のようにその意味を確認している。“5月26日に刊行された韓中日三カ国の研究者が共同執筆した『未来を開く歴史』は第二次大戦終戦60周年という特別な年に特別な意味を添えた事件だ。一部の読者は一歩踏み出しこの本を強化しに分類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力説している。最近の日本の書教科書歪曲、靖国神社参拝などに全てしらんぷりを決め込んでおり、日本で刊行されたこの教科書の運命は予知しがたい状況だ。個人的に私はこの本がわが国の初中等学校の歴史教科書にならねばならないと考える”。

この本の影響力拡大のため中国側の執筆人は東アジア平和フォーラム、韓日中青少年歴史キャンプなどを開き、全ての執筆人が北京において開かれた出版近海に参席した。プービン(歩平)、スジュリヤン(蘇智良)、ヤンチュイン(楊郡)などは南京、上海、杭州、武官、鄭州、沈陽の各地において巡回講演会を開き好評を博した。また上海中学国際部において2005年9月、この本が歴史教科者として選定され、『未来を開く歴史』は中国の学校の教室に入っていくことになった。そのほかに上海市のほかの高校もこの本を歴史副教材に選定し、学生たちの歴史教育の参考資料として推薦されている。この本の中国語版は、2005年中国における社会分野のベストセラーに選定されており、何ヶ月もの間社会科学分野でのベストセラー一位を占めていた。2007年の4月には中国第二回‘国家図書館図書賞’を受賞した。

“過去を忘れず歴史を記憶しよう。平和を愛する心で未来を押し開こう”。韓中日三カ国の青少年たちが歴史の真実を知り戦争の教訓を噛みしめるよう、また青少年の心の中に平和と友好の種をまくために、中国社会科学院近代史研究所、抗日戦争史学会、人民抗日戦争記念館、社会科学文献出版社がソフ(搜狐)ネットワークの読書チャンネルおよび現代教育報と共同で知識比べ大会を開催した。その大会は2006年5月12日に始められ一ヶ月間続けられた。評価委員会の採点の結果全部で2,710の答案用紙が満点をもらった。知識比べたい会の規則により抽選によって表彰されることになり、2006年7月2日中国社会科学院において表彰式を行いこの本の影響力を拡大した。

## 関連書評

『未来を開く歴史』刊行以後研究者たちが発表した書評は大部分きわめて肯定的なものであった。

チャンホン(張弘)は著者の一人スジュリヤンの言葉を引き“『未来を開く歴史』がほかの歴史教材と区別されるもっとも大きな違いは既存の中国歴史教材が例外なしにすべて中国という一国の視点から出発したとするなら、この本の視点は三カ国のダイナミックな関係にあるという点で、またこの本はお互いの関係を通じ当時の曆をを眺望している。また、過去において日本と韓国の歴史に対して国内的な関心はそれほど高くなかった。その一例として中国において編纂された世界史を見るなら、韓半島の歴史に関する部分は極めて少なく、ひどい場合は歴史書を著述する著者さえもよく知らない場合が多かった。だがこの本は日本と韓半島との歴史に関する内容を含んでおり中国の読者の視野を大きく広げられるだろう”。それはまた『未来を開く歴史』を読む読者は三カ国の研究者たちが流した汗のしずくを所々で見出すだろうと述べている。

基本的な歴史観においては三カ国の研究者の間に異見はなかった。実際人々の予測したとこ

ろと同じく韓国と中国の研究者との間には異見が別になかったが、二カ国と日本との間には論争の種が少なくなかった。その理由は韓中両国は第二次大戦当時、日本のファシストの蹂躪を受ける被害者なのだが、日本は被害者であると同時に韓国と中国に災難をもたらした元凶でもあるためだ。日本の右翼歴史教科書の歪曲に対応しようという目的を持ったこの本は実際中国の近現代史に対する記述において抜けているところが多い。さらに東アジアの三カ国の相互関係のなかに西欧の役割もきわめて複雑に絡み合っていて展開されたのだが、やはりこの本はその点にほとんど触れていない。だがこの本はそれにもかかわらず立派なスタートとして遜色ない。第二次大戦当時の基本的な事実と性格(日本が侵略したという事実)に達し、一応意見の一致を見たからである。

読者が自国から飛び出し視線をより広い領域へと拡大するとき、60余年前の戦争に対しより相対的で深みのある見解を確保できるだろう。たとえスタートは大変だったが、三つの本が全て自国においてよく売れているということだけでも著述に参加した研究者たちとしては安堵の息をつくことができるだろう。たとえ日本では読者の熱気に比べマスコミが冷淡ではあるが、結局彼らの努力は三カ国の民衆の認定を受けた。これほど立派なスタートがあるので共同の歴史認識の構築が可能であるだけでなく、この本が三カ国の民衆が現在繰り広げている交流への一助となり、狭い視野から抜け出し誤解を解いていくのに大きな役割を果たすだろうという信頼を与えるに足る。

シュンイン(熊鷹)は『未来を開く歴史：国家を越えた歴史の記録』において次のように評価している。“今日を生きる人々は大部分当時の戦争を直接体験せず、ただ本と教育を通じ戦争についての認識を獲得する。三カ国の青少年たちはそれぞれ歴史および文化の背景そして生活環境が異なり、それにより戦争についてもっている印象もそれぞれ異なる。したがってより広い視野で眺めた歴史の真実を青少年たちに聞かしてあげねばならない。『未来を開く歴史』は参加国において共に編纂し出版したことで三カ国の歴史研究者と教師たちの歴史に対する責任感を示してくれた。既存の研究を基にして韓中日三カ国を記述の対象としているこの本は三カ国の一般読者をターゲットとして近代に韓中日三カ国が歩んできた即席をできるだけ総体的に紹介している。この本は三カ国の歴史、特に韓中と日本との間の侵略と侵略に対抗した歴史を客観的であり公正な視点から紹介している。未来を展望するために必要なのは国の間の相互理解と相手の歴史と共同の歴史に対する深みのある理解だ。”

東北師範大学のクォンフ(郭永虎)は『歴史教学』で次のように指摘している。“この本を一読すると次のような特徴を発見できる。一つ目、差異点よりは同質性を強調しながら平和と友好の歴史観を見せている。二つ目、視野の拡張だ。一刻の限界を打ち破り同時に単純に政治と戦争だけを扱う狭小さも克服した。三つ目、史料が極めて詳細で、戦争による三カ国の民衆の傷を客観的に構成に示している。適切な写真と自然な叙述が目立つ斬新な作文技術が顕著だ”。

### 未来の協力への見通し

全ての国の歴史教科書は例外なしに自国を中心として執筆される。だが東アジアの視点から歴史を観察している『未来を開く歴史』は歴史の真実を復元するという意義をもつ。この本は中国人民が経験した戦争の痛みのほかにも韓国と日本が経験した災難を記述しており、歴史の問題に関する対話だけでなくほかの国の歴史に対する民衆の理解にも一助となる。したがって私は2005年に発表した「共同の歴史認識の追及」においてこの本の編纂に参加した三カ国の研究者たちの努力と成果を高く評価している。

もちろんこの本に対し中国の内部には意見もある程度存在する。一角では戦争において日本と日本国民が経験した苦難をきわめて多く記述しているのに反し侵略戦争に対する日本の国家的責任については記述が貧しく、中国側がこうむった傷に対するところ雲きわめて簡略で中国の研究者たちが非常に譲歩したと見る視角もある。特に海外に居住している中国人のなかにはそのように考える人が多い。

『未来を開く歴史』は重い歴史の経験を記録した本であり、また未来を開いていこうとする本でもある。私たちはこの本が東南アジアが葛藤を解消し和解の道へと進んでいく一助となる試みでもあることを願う。またこの本を通じ日本の進歩陣営に力を与え二本の右翼教科書が教室へと入っていくのを防ぎ、正しい歴史認識を慣用することを願う。

中国社会そして研究者たちは文化、教育などの分野でも三カ国の経済貿易協力を追いつき東アジア各国の聴力が一歩また進んでいくことを期待している。